

2014仁川アジア競技大会 主競技場 完工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주경기장 완공



アジア45億人の祝祭、その聖火が燃え上がる「2014 仁川アジア競技大会」の主競技場が、ついにその雄壯な姿をあらわにした。

波、空、舞をモチーフにしてデザインされた主競技場は、全体が5階建てになっており、アジアでは最大の規模を誇っている。建築面積63万1千975㎡、観覧席6万2千818席。西区(ソグ) (서구) 옹비(연)洞に位置する主競技場では、9月19日の開幕式、10月4日の閉会式をはじめ、陸上競技はもちろんのこと、マラソンの決勝地点として活用されることから、アジア人の注目を一斉に浴びる。

南北に長い形態の競技場は、円形グラウンドに光が差し込む姿を形象化。また、一般観衆席は、心地よい観覧のためにゆとりをもって設置され、全ての座席から競技場が良く見えるように設計されている。特に障害者観覧席534席は、障害者と老弱者を考慮し、回転式車椅子席と、同伴者席が共に配置されている。

目を見張るのは、観覧席の50%が可変席で

あることだ。東側の可変席3万席は、大会後には撤去され、そこには立体緑地空間と、各種生活便利施設となって一変する。大型映画館、ディスカウントショップ、宴会場、ビューティークリニック、スポーツセンター等、多様な文化エンターテインメント施設として蘇る。

主競技場は、自然と環境が考慮された「グリーン競技場」として造成された。地熱を集め冷暖房に活用し、太陽熱は主競技場の室内照明として使用される。また、屋根の上に降った雨水は貯蔵庫に溜められ、グラウンドの造景用の用水として再利用される。

主競技場の南側には、2千300席のスタンドがあるクリケット競技場が設置された。クリケットは野球とよく似たルールを持つ種目としてとして、イギリスをはじめ、インド、パキスタン、バンラディッシュ等で人気があるスポーツだ。

45억 아시아인 축제의 성화가 활활 타오를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주경기장이 마

침내 그 웅장한 모습을 드러냈다.

파도, 하늘, 춤을 모티브로 디자인한 주경기장은 전체 5층 규모로 아시아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대지면적은 63만1천975㎡이며 관람석은 6만2천818석이다. 서구 연회동에 자리잡은 주경기장에서는 9월 19일 개막식과 10월 4일 폐회식을 비롯해 육상경기는 물론 마라톤 결승지점으로 활용됨으로써 아시아인의 눈이 집중된다.

남북으로 긴 형태의 경기장은 원형 그라운드에 빛이 들어오는 모습을 형상화 했다. 일반 관중석은 쾌적한 관람을 위해 넓은 간격으로 설치했으며 모든 좌석에서 경기장이 잘 보이도록 설계했다. 특히 장애인 관람석 534석은 장애인과 노약자를 고려하여 회전식 휠체어석과 동반자석을 함께 배치했다.

눈에 띄는 것은 관람석의 50%는 가변석이다. 동쪽 가변석 3만석은 대회 이후에 철거된다. 이 자리에는 입체 녹지공간과 각종 편의시설이 들어선다. 대형 영화관, 할인점, 연회장, 뷰티클리닉, 스포츠센터 등 다양한 문화엔터테인먼트 시설로 거듭난다.

주경기장은 자연과 환경을 고려한 '그린 경기장'으로 조성했다. 지열을 모아 냉난방으로 활용하고 태양광은 주경기장의 실내 조명으로 사용한다. 지붕 위로 내린 빗물은 저장고에 모아 그라운드 조경 용수로 재사용한다.

주경기장 남측에는 2천300석의 스탠드를 갖춘 크리켓경기장이 있다. 크리켓은 야구와 흡사한 룰을 갖고 있는 종목으로 영국을 비롯해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등에서 인기가 높은 스포츠다.

글·사진 김민영 편집장
키ム·미니ョン(김민영)編集長·gem0701@hanmail.net



Photo News



この瞬間から「大人」 이 순간부터 나는 '어른'

仁川の中学校でネイティブ教師として活躍しているエドゥリアン マクレムブォサードウ(カナダ)さんは、韓国伝統の成年儀式を体験中だ。成人式では、男子は大人の服装に官帽をかぶり、おつまみといっしょにお酒を飲んだ。一方、女子は大人の服装をし、かんざしをさし、お茶を飲んだ。この日、西区文化院では彼らに良書を贈呈し、今後成人として社会に対する責任と義務を尽くしていくようお願いさせた。

「成年の日」は、毎年5月の第3週目の月曜日(2014年 5月19日)となっている。

인천의 중학교 원어민 교사인 에드리아나 마크렘퍼사드(캐나다) 씨가 한국 전통 성년 의식을 체험 중이다. 성인식에서 남자는 어른의 복장을 하고 관모를 쓰며 술과 안주를 마셨다. 여자는 어른의 복장을 하고 비녀를 꽂으며 차를 마셨다. 이날 서구문화원에서는 그들에게 좋은 글을 선물하여 성인으로서 사회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일렷다. '성년의 날'은 매년 5월 셋째 주 월요일(2014년 5월19일)이다.

글·사진 김민영 편집장
文章 照片·金珉煥 主口·gem0701@hanmail.net



第43回 全国少年体育大会 제43회 전국소년체육대회

5月 夢と挑戦の場-大韓民国の中心、経済首都仁川へ、皆様をご招待いたします。

5월 꿈과 도전의 장 - 대한민국의 심장, 경제수도 인천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2014. 05.24-05.27

体も丈夫、心も丈夫、国も頑丈!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나라도 튼튼!

主催 大韓体育会
主管 仁川広域市, 仁川広域市教育庁, 仁川広域市体育会
後援 文化体育観光部, 教育部
場所 仁川文鶴競技場 等 43ヶ所

주최 | 대한체육회
 주관 |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체육회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장소 | 인천문학경기장 등 43개소



韓国生活は私が先輩、影から後輩を援助

“한국생활은 내가 선배, 뒤에서 후배를 돕는다”

移住背景住民ナナム奉仕団 이주배경주민 나눔 봉사단



富平區 多文化支援センターで会議中の「移住背景住民 ナナム(나눔) 奉仕団」
부평구 다문화지원센터에서 회의중인 '이주배경주민 나눔봉사단'

渡り鳥が飛行をするときですら引導役の鳥がいる。風の抵抗が一番多く受ける鳥の犠牲があつてこそ、後からついてくる鳥たちはより楽に飛びやすくなるのだ。国から国へと移住する結婚移民者にもこのような引導者、即ち「メント」が必要ではなからうか? 富平(ブピョン)区「移住背景住民ナナム奉仕団」が、メントとして立ち上がった。移住背景住民ナナム奉仕団(以下 奉仕団)は、22名の移住女性たちが集つて活動する。短い人で3年、また長い人で10年以上韓国で生活をしているベテラン移住民たちだ。奉仕団員たちは、富平(ブピョン)区の22の洞に一人ずつ派遣され、担当地域の新しい

移住民たちと直接出会い、韓国生活を始めるにあたり必要な韓国の文化や、福祉支援、関連機関の紹介等、多様な情報を提供している。富平4(ブピョン)洞を担当しているシェ・ホンエン(쉬홍옌中国出身、9年目)氏は、「移住民との感情交流が重要だ。」と強調する。彼女は、「常に家庭訪問を行つては話を分かち合う。」と言い、「韓国生活が長くても、いまだに寂しさを感じることもあるんです。多文化女性たちには、こんな関心が必要なんですよ。」と言つた。また、「皆が幸福に生活してくれればいいな、という思いから奉仕を始めるようになったんです。」と言つた。奉仕団は、富平(ブピョン)

区役所の支援と、富平区多文化支援センターの事業一環として運営される。彼らは、富平区多文化支援センターと担当する洞事務所で新しい情報を習得し、移住民女性たちに伝達していくハープの役割をつとめている。富平区多文化支援センターのソン・ボンソン(송봉선)チーム長は、「奉仕団員の方々の活動は、移住民たちが地域住民として定着するのにとても役立っています。」と言いながら、「今まで援助を受ける立場であつた移住女性たちが、支援実施活動を行うことによって、自矜心を持てるようになるという観点からも非常に意味があります。」と言う。一方、富平区は仁川市内の外国人が一番多く居住している地域として、奉仕団の活動が仁川市の外国人定着支援に

多くの助けになることが期待されている。

● 問い合わせ先 032-511-1800~01,1809
(富平区多文化支援センター)

철새가 비행을 할 때조차 이끌어주는 이가 있다. 바람의 저항을 가장 많이 받는 새의 희생으로 뒤따르는 새들은 보다 쉽고 편리한 비행을 할 수 있게 된다. 나라에서 나라로 이주하는 결혼이민자에게도 이런 이끔이, 즉 ‘멘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부평구 ‘이주배경주민 나눔 봉사단’이 멘토로 나섰다.

이주배경주민 나눔 봉사단(이하 봉사단)은 22명의 이주여성들이 모여 활동한다. 적게는 3년, 많게는 10년 이상 한국생활을 한

배태랑 이주민들이다. 봉사단원들은 부평구 22개동에 한 사람씩 파견돼 담당지역의 새로운 이주민들을 만나고 있다. 봉사단은 처음 한국생활을 시작한 이주민들에게 한국의 문화나 복지혜택, 관련기관 소개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부평 4동을 담당하는 쉬홍옌(중국출신, 9년차) 씨는 “이주민과의 감정 교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녀는 “수시로 가정방문을 해서 이야기를 나눈다”면서 “한국생활을 오래했어도 여전히 외로움을 느낄 수 있다. 다문화여성들에게는 이런 관심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다들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봉사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봉사단은 부평구청 지원, 부평구 다문화지원센터 사업의 일환으로 운영된다. 이들은 부평구다문화지원센터와 담당 동사무소에서 새로운 정보를 습득, 이주민여성들에게 전달해주는 허브역할을 해내고 있다.

부평구다문화지원센터 송봉선 팀장은 “봉사단원분들의 활동이 이주민들이 지역주민으로서 정착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며 “수혜자의 입장이던 이주여성들이 도움자로서 활동을 하면서 스스로 자긍심을 갖는 것에도 의미가 있다”고 말한다.

한편 부평구는 인천시내 외국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 봉사단 활동이 인천시 외국인 정착지원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문의 : 032-511-1800~01, 1809 (부평구다문화지원센터)

글·사진 차지은 기자
-차·지·운(차지은) 記者·minsable@hanmail.net

センターのお知らせのまとめ

「訪問運転免許、PC学科試験」実施

南東(ナムドン)区多文化家族支援センターは、仁川運転免許試験場主管で、先月4月27日、外国人勤労者のためのPC学科試験を実施した。当日総65名が仁川外国人支援センターで学科試験を受験した。試験は、英語、中国語、ベトナム語、カンボジア語等、12ヶ国語で出題された。

‘찾아가는 운전면허 PC학과시험’ 실시

남동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인천운전면허시험장 주관으로 지난 4월 27일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 pc학과시험을 실시했다. 이날 총 65명이 인천외국인력지원센터에서 학과시험을 치렀다. 시험은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캄보디아어 등 12개 언어로 출제되었다.

就学前子女と母の集い構成

南(ナム)区多文化家族支援センターでは、就学前子女の準備事項、及び小中学校生活全般に関しての情報を提供する「現職教師と共に行う教室の話」を行う、母子の集りを構成した。母子の集いは今年12月まで毎月最終週土曜日、午後1時から行われる予定だ。

취학 전 자녀 자모 모임 구성

남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자녀의 취학 전 준비사항 및 초등학교생활 전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현장교사와 함께하는 교실이야기’를 진행하고 자모 모임을 구성했다. 자모 모임은 12월까지,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오후 1시에 진행할 예정이다.

子女の放課後学習「タレ(다래)教室」開講

富平(ブピョン)区多文化家族支援センターでは、多文化家庭子女の放課後学習指導教育のため、小学校4~6年生の6名、そして中・高生の7名を対象に「タレ(다래)教室」

를4月21日から2015年の2月まで運営する。

자녀 방과 후 학습 ‘다래교실’ 개강

부평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가정 자녀 방과 후 학습지도 교육을 위해 초등학교 4~6학년 6명, 중·고등학생 7명을 대상으로 ‘다래교실’을 4월 21일부터 2015년 2월까지 운영한다.

「おふくろの味(ソンマツ)」 進行

桂陽(ゲヤン)区多文化家族支援センターは、ボランティアと結婚移民者間のふれあいと韓国の食文化体験の機会を提供するため、毎月1回(第4週目の月曜日 5/19) 11月まで行う計画だ。

校長先生と気兼ねなくハイファイブ

한누리 학교 ‘교장선생님과 스스럼없이 하이파이브’

小・中・高等統合多文化学校 ノンヒョン(논현)洞に開校 초・중・고 통합다문화학교 논현동에 있다

生まれた国や顔立ち、そして年齢も違う200余名の子供たちが、毎日笑いながらふれあうハンヌリ学校は、全国初の小・中・高等統合の多文化公立学校だ。2013年3月1日に開校し、その後一年間17ヶ国から来た147名の学生の委託教育を実施している。中途入国子女、外国人勤労者の子女、一般学校での適応が困難な多文化家庭の子女であれば、居住地域を問わず支援可能であり、中学生以上は、寄宿舎の利用も可能である。現在、随時入学制で運営されている。世界各国の国旗が掲揚された建物には、色とりどりの廊下と教室、きれいな校内食堂や快適な寄宿舎は、環境にやさしい空間となっている。学級数は小学校6学級、中学校3学級、高校3学級、基礎(ディディムドル/디딤돌)2学級等、全15学級で学級当り15名ずつ、総定員225名だ。正規の教育課程は一般学校の50%程度で、残りは韓国語と韓国の文化、人性及び、生活過程等、多様な特化教育がそろっている。跆拳道、工芸、オカリナをはじめ、芸術や体育の時間は人性と感性の滋養分になっている。片手間に各国についての多文化教育も行っている。教室外での時間も多い。「世界人の日」、「韓中文化祭り」、「仁川風物祭り」等の外部行事を楽しみながら生き生きと体験することで、自然と多文化についての価値観が形成される。みんなが全く別のところから来た子供たちにもかかわらず、共通点がある。それは、皆がいちがいに明るい表情であ



パクヒョンシク(박형식) 校長とハンヌリ学校の學生たちが、多情なポーズ。박형식 교장과 한누리 학교 학생들이 다정하게 포즈를 취하고 있다.

いさつすること。校長先生とも気兼ねなくハイファイブをする彼らの顔はまさに天真爛漫。多文化家庭での学校生活について苦勞されている方々にパク・ヒョンシク(박형식)校長は、「迷わず学校にお電話下さい。専門の相談教師と話しを交わすことで、多くの助けになると思われま

- 住所 仁川市 南東区 ノンヒョン(논현) 코잔(교잔)로 215(논현동 640-2)
- 問い合わせ先 032-422-2102

태어난 나라, 생김새, 나이도 다른 200여 명의 아이들이 매일 웃으며 어울리는 한누리 학교는 전국 최초의 초·중·고 통합 다문화 공립학교이다. 2013년 3월 1일 개교해 한 해 동안 17개 나라에서 온 147명의 학생을 위

탁 교육 했다. 중도입국 자녀, 외국인 근로자의 자녀, 일반학교 적응이 어려운 다문화 가정의 자녀라면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지원이 가능하고 중학생 이상은 기숙사 이용도 가능하다. 현재 수시입학제로 운영하고 있다.

세계 각국의 국기가 계양된 건물에 알록달록한 복도와 교실, 깔끔한 교내 식당, 쾌적한 기숙사는 자연 친화적인 공간으로 꾸며졌다. 학급 수는 초등학교 6학급, 중학교 3학급, 고등학교 3학급, 디딤돌 2학급 등 모두 15 학급으로 학급당 15명 씩 총 정원은 225명이다.

정규 교육과정은 일반 학교의 50%로 정도이고 나머지는

한국어와 한국 문화, 인성 및 생활과정 등 다양한 특성과 교육으로 채워진다. 태권도, 공예, 오카리나를 비롯한 예체능 시간은 인성과 감성의 자양분이 된다. 틈틈이 각 나라에 대한 다문화 교육도 받는다.

교실 밖에서의 시간도 많다. ‘세계인의 날’, ‘한중 문화축제’, ‘인천풍물축제’ 등 외부 행사를 즐기는 동안 생생한 체험을 하며 자연스레 다문화에 대한 가치관이 형성된다.

모두 다른 곳에서 온 아이들이지만 공통점이 있다. 하나같이 밝은 표정으로 인사를 한다는 것. 교장선생님과 스스럼없이 하이파이브를 하는 얼굴이 친진하다. 다문화 가정의 학교 생활로 인해 고민하는 이들에게 박형식 교장은 “망설이지 말고 학교로 전화를 걸어 주세요. 전문 상담교사와 이야기 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라고 전했다.

- 주소 : 인천시 남동구 논현 교잔로 215(논현동 640-2)
- 문의 : 032-422-2102

글·사진 주란 기자
—조·란(주란) 記者 rri0217@naver.com



‘엄마의 손 맛’ 진행

계양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자원봉사자와 결혼이민자간의 화합과 한국음식 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매월 1회(넛째주 월요일 5/19) 11월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我が子の夢探し」 교육

中(췔ン)区多文化家族支援センターでは、去る3月24日、子女の適性に合った進路を探るため「我が子の夢探し」教育を行った。

‘우리아이 꿈 찾기’ 교육

중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지난 3월 24

일, 자녀의 적성에 맞는 진로를 찾기 위해 ‘우리아이 꿈 찾기’ 교육을 진행하였다.

多文化理解の同伴体験

延壽(ヨンス)区多文化家族支援センターは、延壽(ヨンス)区内の多文化家族及び一般家庭、そして片親の家庭を対象に、共に暮らす共同体意識涵養プログラムを分期別に行う計画だ。韓国民俗村体験(韓國の歴史の中に～)、イム진강(임진강)国民観光地体験(我らの願いは統一～)、干潟体験(神秘的な干潟)、イム실(임실)チーズ村(自分で作ったピ자가最高!)等 計4回実施する。

다문화 이해하기 동반 체험

연수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연수구 내 다문화가족 및 일반가족, 한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더불어 사는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분기별로 진행할 계획이다. 한국 민속촌 체험 (한국의 역사 속으로～)과 임진각 체험(우리의 소원은 통일～), 갯벌체험(신비한 갯벌), 임실치즈마을(내가 만든 피자가 최고야!)등 총 4회다.

「虹の奉仕団」 分かち合う手進行

西(ソ)区多文化家族支援センターは、「虹の奉仕団」を通じて、結婚移民者を含む多文化家庭が、地域社会機関から

受けている援助を、疎外されている隣人に還元する活動を行っている。今年は、「インジョンジェファル(인정재활)園」で1年間、機関の清掃活動を行う予定だ。奉仕団員は、多文化家族の10世帯、計27名だ。

‘무지개 봉사단’ 나눔 손길 진행

서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무지개 봉사단’을 통해 결혼이민자를 포함한 다문화가정이 지역사회 기관에서 받은 도움을 소외된 이웃에게 환원하기 위한 활동을 한다. 올해는 인정재활원에서 1년 간 기관 청소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봉사단원은 다문화 가족 10세대로 총 27명이다.

これまったくお金といっしょね。 オンヌリ(온누리)商品券 “이거 돈이랑 똑 같네, 온누리상품권”

「オンヌリ商品券? 聞いたことはあるんだけど……。」現金のように使える伝統市場専用の商品券がある。この商品券が一枚あれば、伝統市場の大きな人情を感じることができる。ショッピングに出た移住女性たちの手にも、オンヌリ商品券が握られている。商品券になじみのなかった彼女たちだが、簡単に使えるだろうか?

ベトナム出身の移住女性イ・ヘジョン(이혜정/25)さんと、ホン・バン(홍반/25)さんは、育児と家事をしながら職場にも通っている「ワーキングママ」。彼女たちの目的地は、「富平カン(강)市場」。以前は農水産物の競売市場だった。イ・ヘジョン(이혜정)さんは、「富平市場では、ベトナムで食べていたものと似たような材料が沢山手に入るんですよ。特に魚の種類が豊富で、肉類もとても低価格なんです。私以外にも多くの移住女性たちがここで買い物すると耳にしました。」と伝えた。市場の道をよく知っている彼女たちは、広い市場でも美味しくて安い店をすぐにみつけ出した。魚と精肉、果物まで丹念に調べる彼女たちは、いつのまにか「主婦9段」のポーズを醸し出していた。ひとしきり市場を楽しんだ彼女たちは、キムチムックスで腹ごしらえをすることに。イさんは、オンヌリ商品券の1万ウォン券を商人に差し出した。

キムチムックスといっしょに返ってきたおつりは現金だった。ホン・バンさんは、「これまで商品券を使ったことがなかったんです。手にはいると夫に渡していたのですが、商人たちも現金と全く同じ扱いをしてくれるので、とても便利ですね。」と言った。イ・ヘジョンさんも、うなずきながら言葉を続けた。「ベトナムには、こんな商品券がないのではじめは慣れなかったんですが、使い方が難しくないのが良いですね。特に名節時には、姪や甥や夫の実家の家族たちにお小遣いを準備するとき、現金だと受け取るのをいやがるんですが、商品券を準備したところ負担に感じることなく受け取ってくれるので気分良くあげることができるんですよ。」

オンヌリ商品券は、中小企業庁と市場経営振興院で発行された、伝統市場専用商品券だ。紙の商品券は5千ウォン券と1万ウォン券を発行し、電子商品券も販売している。額面金額の60%以上使用すれば、残額(코스룸돈: 거스름돈)を現金で受け取るになっているが、大部分の市場商人は、1千ウォンだけ購入しても残りを現金で返してくれている。また個人が現金で商品券を購入する場合、5%割引(最大30万ウォン)が適用され、より安価でのショッピングが可能となる。オンヌリ商品券は、全国の郵便局、セマウル金庫、企業銀行、ウリ銀行、信協等、10ヶ所の金融機関で購買が可能だ。



イ・ヘジョン(左)さんとホン・バン(右)さんがオンヌリ商品券で食べるものを買っている。
이혜정(좌) 씨와 홍반(우) 씨가 온누리상품권으로 음식을 구입하고 있다.

● (問い合わせ先 1544-4090)

“온누리 상품권이에요? 들어는 봤는데…”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한 전통시장 전용 상품권이 있다. 이 상품권 한 장이면 전통시장의 넉넉한 인심을 느껴볼 수 있다. 쇼핑에 나선 이주여성들의 손에도 온누리 상품권이 들려 있다. 상품권이 생소했던 그들, 어렵지 않게 쓸 수 있을까?

베트남 출신 이주여성 이혜정(25) 씨와 홍반(25) 씨는 육아와 살림 그리고 직장까지 다니는 ‘워킹맘’이다. 그들이 찾아간 곳은 ‘부평 강시장’. 예전에 농수산물 경매시장이 있던 곳이다. 이혜정 씨는 “부평시장에서는 베트남에서 먹던 음식과 비슷한 재료를 많이 구할 수 있어요. 특히 생선의 종류가 다양하고 육류도 굉장히 저렴해요. 저 말고도 많은 이주여성들이 이곳에서 장을 본다고 들었어요.”라고 전한다.

시장길이 익숙한 그녀들은 넓은 시장에서도 맛있고 저렴한 가게를 금방 찾아낸다. 생선과 정육, 과일까지 꼼꼼히 살피는 그녀들은 어느덧 ‘주부 9단’의 포스를 뽐내고 있다. 한참 시장 나들이를 즐기던 그들은 김치 묵국수로 요기를 하기로 했다. 이 씨는 온누리 상품권 1만원 권을 상인에게 건넸다. 김치 묵국수와 함께 돌아온 거스름돈은 현금이다.

홍반 씨는 “그동안 상품권을 써본 적이

없어요. 생기면 남편한테 주었는데, 상인들도 현금이랑 똑같이 취급하니까 편리한 것 같아요.”라고 말한다.

이혜정 씨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다. “베트남에는 이런 상품권이 없어서 생소했어요. 하지만 사용법이 어렵지 않아서 좋더라고요. 특히 명절 때 조카나 시댁 식구한테 용돈을 드릴 때, 현금은 받기 불편해 했는데, 상품권으로 드렸더니 부담 없이 받으셔서 기분 좋게 드릴 수 있었어요.”

온누리 상품권은 중소기업청과 시장경영진흥원에서 발행하는 전통시장 전용 상품권이다. 종이상품권 5천 원 권과 1만 원 권을 발행하고, 전자상품권도 판매한다. 액면 금액의 60% 이상을 사용해야 잔액(거스름돈)을 받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시장 상인들은 1천 원만 구입해도 나머지를 현금으로 거슬러주고 있다. 또한, 개인이 현금으로 상품권을 구매하면 5% 할인(최대 30만원)을 해주고 있어 보다 저렴한 쇼핑이 가능하다. 온누리 상품권은 전국 우체국, 새마을금고, 기업은행, 우리은행, 신한 등 10개 금융기관에서 구매할 수 있다.

● 문의 1544-4090

글·사진 차지은 기자
—차·쥬온(차지은)記者 ·minsable@hanmail.net

断片情報 / 토막정보

“じゃ、文化商品券って何?” “그럼, 문화상품권은 뭐지?”

オンヌリ商品券が、傳統市場で特化された商品券だとすれば、文化商品券は、餘暇及び、文化生活に有用な商品券だ。

(柱)韓國文化振興から發行される文化商品券は、各種映畫館及び、書店、遊園地、フランチャイズ飲食店、インターネットショッピング等、使用可能な場所が多様であるのが特徴。
オンラインで使用する場合には、カルチャーランド(<http://www.cultureland.co.kr>)でアカウントの作成後、商品券番号を入力するだけで使用可能。商品券は、5千ウォン券の場合、額面價の80%以上、1萬ウォン券は、60%以上使用後、残額拂い戻し可能。
文化商品券は、全國の書店、及びコンビニ、國民銀行、第一銀行、郵便局、オンライン等で購買可能。最近は、モバイル文化商品券が發行され、より簡単に求められる。ほとんど現金での購入だ

が、一部の売り場においては、信用カードでの購買も可能。

온누리 상품권이 전통시장에 특화된 상품권이라면, 문화상품권은 여가 및 문화생활에 유용한 상품권이다. (주)한국문화진흥에서 발행하는 문화상품권은 각종 영화관 및 서점, 놀이공원, 프랜차이즈 음식점과 인터넷 쇼핑몰 등 사용처가 다양하다는 것이 특징이다. 온라인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컬처랜드(<http://www.cultureland.co.kr>) 계정 생성 후 상품권 번호 입력만으로 사용할 수 있다. 상품권은 5천원권의 경우 액면가의 80% 이상, 1만원권은 60% 이상 사용 후 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문화상품권은 전국 서점 및 편의점, 국민은행, 제일은행, 우체국, 온라인 등에서 구매가 가능하다. 최근 모바일 문화상품권이 발행돼 보다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다. 대부분 현금으로 구입할 수 있지만 일부 매장에서 신용카드로도 구매할 수 있다.



なんでも聞いてください。「120ミチュホル(미추홀)コールセンター」

무엇이든 물어 보세요 ‘120 미추홀 콜센터’



モンゴル出身の移住女性 ハジュン(하주영)さんが、モンゴル語で相談を聞いている。
몽골출신 이주여성 하주영씨가 몽골어로 상담하고 있다.

韓国生活定着に必要な情報をどこで仕入れるか？ 急変する社会では情報は力なり。移住女性や 外国人労働者は韓国人に比べ情報習得にうといのが実情だ。ミチュホルコールセンター120では 多様なニュースと請願業務等の情報提供を行い、仁川市民たちの力になっている。

ミチュホルコールセンター(以下センター)は365日24時間(年中無休)市民たちと疏通し、60余名の職員たちが毎日2、3千通の電話を受けている。センターは、市区のお知らせ、及び交通情報、上水道関連情報を提供し、請願手続きも担当している。 120コールセンターで

一番たくさん入ってくる問い合わせは、バス情報、及び不法駐車に関しての問い合わせ等、交通案内であることが集計される。

センターには、英語とベトナム語、モンゴル語等、多國語相談サービスを支援している。外国語サービスを提供している ‘外国語チーム’ の相談師は、總4名。その中でもモンゴル出身の移住女性のハ ジュン(하주영)さんは、モンゴル語部門を擔當している、唯一の移住女性相談師だ。彼らは、韓國語が下手な外國人たちに、母國語サービスを提供している。 また、テレビ電話を使った手話相談も行い、仁川市民全ての目と耳になっている。

イ・キョンジン(이경진)教育講師は、「結婚移民女性は、ビザや旅券問題のような出入国に關した問い合わせが一番多く、外国人労働者は、賃金關連の問い合わせが多いんです。特に 事業主との意思疏通が大変なため、通訳サービスを主に利用しています。また、移住女性たちには、周期的に多文化關係の行事情報をSMSで送っているんですよ。」と伝えた。

ミチュホルコールセンターは、2011年12月オープン後、相談分野を拡大している。現在、南(남)区、延壽(연수)区の上水道業務を統合支援しており、他の自治区においても統合サービスする計画だ。

- 外国語相談 利用方法(平日 午前 9時～午後 6時)
- 032-120→9→言語別 案内番号 選択後 相談進行
- スマートアプリ「ミチュホルコールセンター」でも外国語支援
- 手話相談: 070-7947-9005

한국생활 정착에 필요한 여러 정보는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 급변하는 사회에서 정보는 힘이다. 이주여성이나 외국인노동자는 한국인에 비해 정보습득에 취약한 것이 사실. 미추홀 콜센터 120에서는 다양한 소식과 민원업무 등의 정보 제공으로 인천시민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있다.

미추홀콜센터(이하 센터)는 365일, 24시간 시민들과 소통한다. 60여 명의 직원들이 매일 2, 3천통의 전화를 받는다. 센터는 시·구청 소식 및 교통정보, 상수도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민원접수도 담당하고 있다. 120

콜센터에 가장 많이 들어오는 문의는 버스정보 및 불법 주차차 관련 문의 등의 교통 안내인 것으로 집계된다.

센터에서는 영어와 베트남어, 몽골어 등의 다국어 상담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어 팀’의 상담사는 총 4명. 그중 몽골출신 이주여성 하주영씨는 몽골어 부문을 담당하고 있는 유일한 이주여성 상담사다. 이들은 한국어가 서툰 외국인들에게 모국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밖의 언어는 통역서비스를 활용한 상담이 가능하다. 또, 화상전화를 통한 수화상담을 진행해 모든 인천시민들의 눈과 귀가 되어주고 있다.

이경진 교육강사는 “결혼이민여성들은 비자나 여권문제 같은 출입국관련 문의를 가장 많이 하고, 외국인 노동자들은 임금관련문의를 많이 하세요. 특히 사업주와 의사소통이 힘들어 통역서비스를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 이주여성들에게는 주기적으로 다문화관련 행사 정보를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라고 전한다.

미추홀 콜센터는 2011년 12월에 문을 연 뒤, 상담분야를 늘려나가고 있다. 현재 남구, 연수구, 상수도 업무를 통합지원하고 있으며, 나머지 자치구도 통합 서비스할 계획이다.

- 외국어상담 이용방법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 032-120 → 9 → 언어별 안내번호 선택 후 상담진행
- 스마트앱 ‘미추홀콜센터’에서도 외국어지원
- 수화상담: 070-7947-9005

글·사진 차지은 기자
—챌·쥬안(차지은) 記者·minsable@hanmail.net

ピリッ辛、タイの味 世界三大スープ、「トムヤンクン(□□□□□□□□□□) 獨 쓰는 태국의 맛_세계 3대 수프, ‘똥양궁’



「トム」はスープ、「ヤン」は甘酸っぱさ、「クン」はエビという意味で、エビ、レモン グラス、ライムの葉、唐辛子等を入れ煮込む。辛さと酸っぱさ、そして甘さが調和した奥深い味わいの保養食だ。香辛料は、消化を促進させ、食材の不快感匂いや味をなくしてくれる。

特に固有の香をもっているパクチー(파슬/コリアンダーcoriander)は、蚊が近づくのも防いでくれるありがたい香辛料だ。独特の味と香、そしてその栄養から、フランスの地中海

タイの中部地域を代表する料理「トムヤンクン(Tom Yam Kung)」。タイは外勢からの侵略が なかった国だが、食べ物は多様な国の影響を受けている。地理的な特性と環境により米や海産物が豊富で、インドのカレーのような香辛料、そしてポルトガルから入ってきたチリ等が料理の主材料として使用される。ここに中国人が使用していた鍋と箸等の文化が混ざり、トムヤン クンが誕生した。

式海産物 スープであるブイヤベース、中国のラグジュアリースープであるシャークスピンと共に、世界三大スープの一つと見なされている。トムヤンクンをゆっくり味わえば、多様な文化と調和を 成しつつも、ピリッと辛いタイ料理の真髄を味わうことができる。

태국 중부지역을 대표하는 음식 ‘똥양궁(Tom Yam Kung)’. 태국은 외세의 침략이 없었던 나라이지만 음식은 다양한 나라의 영향을 받았다. 지리적 특성과 환경으로 쌀, 해산물이 풍부하고 인도의 커리 같은 향신료, 포르투갈에서 들어온 칠리가 음식의 주재료로 쓰인다. 여기에 중국인이 사용하던 냄비와 젓가락 등의 문화가 섞여 똥양궁이 탄생했다.

‘똥’은 국물, ‘양’은 새콤하다, ‘궁’은 새우라는 뜻으로 새우, 레몬그라스, 라임 잎, 고추 등을 넣고 끓인다. 매운 맛과 신맛, 달콤함이 섞여 오묘하고 깊은 맛을 내는 보양식이다. 향신료는 소화를 촉진하고 혹시 모를 불쾌한 향과 맛을 없앤다. 특히 고유의 향을 가진 고추는 모기의 접근까지 막아주는 고마운 향신료. 독특한 맛과 향, 영양으로 프랑스의 지중해식 해물탕 부이야 베스, 중국의 럭셔리 수프 샹스핀과 함께 세계 3대 수프의 하나로도 꼽힌다. 똥양궁을 천천히 음미하면 다양한 문화와 조화를 이루면서도 독 쓰는 태국의 참 맛을 느낄 수 있다.

글·사진 주란 기자
—쥬·란(주란) 記者·mri0217@naver.com

パキスタンから来た チェ・ムビン(최무빈)氏のほんわか家族物語 _ “情深い韓国が好きなんです。”

파키스탄에서 온 최무빈 씨의 알콩달콩 가족이야기 _ “정이 많은 한국이 좋아요”



左より妻のサエラ(사에라)さん, 샤미르(샤미르)君, 최무빈(최무빈)さん, 알리쉬바(알리쉬바)ちゃん, 미날(미날)ちゃん, 샤힐(샤힐)君 좌측부터 아내 사에라씨, 샤미르군, 최무빈씨, 알리쉬바양, 미날양, 샤히르군

チェ・ムビン(최무빈 41)氏は2005年に帰化した、韓国国籍の仁川人だ。現在富平(プピョン)に居住している彼は、仁川で中古自動車の輸出事業を営むパキスタン人の中の初期メンバーだ。1996年貿易事業のため韓国に渡って来て以来、彼と彼の家族は和気藹々(あいあい)仁川人として生活している。

こじんまりとしてすっきりと整頓された彼の家には、妻のサエラ・ムビン(사에라 무빈 33)氏と、チェ・シャヒル(최샤히르 7)君、チェ・ミナル(최미날 5)嬢、そして双子の男女、チェ・シャミル(최샤미르 3)君、チェ・アリシバ(최알리쉬바)嬢、6名の家族でにぎわう幸せがぎゅっとつまっている。彼と子供たちはみな「崔」氏だ。ムビン氏が韓国生活初期のころ、援助してくれた年上の友人の姓からとったものだ。

ひとしきり手のかかる時期の子供たちと、まだ韓国語が不自由な妻。他国での生活はたやすくはないだろうに、家長であるチェ・ムビン氏の肩はどっしりと落ち着いている。内気な微笑みを隠すようにヒジャーブをまとった彼の妻とは、パキスタンで2006年仲介により婚約してから一度会った。その後一人で韓国に帰って来た彼は、国際電話で彼女との愛を育てていった。小学校教師の彼女と2007年結婚し、サエラ氏を韓国に

呼び寄せた。

サエラ氏は、夫との初対面を「第一印象がとっても良かったんです。」と思い出す。「韓国に行けば良い暮らしができると思い、まったく心配はしませんでした。今の韓国の生活に満足しています。」幼稚園に通う子供たちとの活動も多く、週2回は韓国に居住しているパキスタン女性たちとの集りもある。韓国の文化に適應するのは、特に大変じゃない、と彼女は冗談のように話していた。「私には韓国スタイルがピッタリ合うようなんです。」彼女は帰化申請を二度したが、二度共に不合格。理由は韓国語の実力だ。チェ・ムビン氏の家族の中で唯一パキスタン人は妻だけ。「熱心に韓国語を習って、もう一度帰化申請をし、機会があればパキстанを知らせる講師として活動したい。」という想いをこっそりと伝えてくれた。

チェ・ムビン氏はパキスタンで物理学を専攻し、広告会社でコンピューターグラフィックデザイナーをしていた。専攻とはまったく関係のない職種で勤務していた彼の好奇心が、留学へとつながった。1996年韓国外国語大学とソウル大学で語学コースを終え、ソウル大学電気電子工学科に入学した。難しい韓国語の専攻書籍の壁にぶつかり、2年生の時に休学した。

その代り彼は、通訳のアルバイトを始めた。生地の輸出貿易会社で仕事を習ってから、中古自動車の輸出を本格的に始め仁川に引っ越してきたのが2004年の6月だ。貿易を始めた当時は、事務室もなかったが今では立派な事務室と数名の職員を抱える社長だ。自動車と重装備、古鐵、生地、毛布等をリビア、エジプト、中東等に輸出している。

「象の歯ですよ。」象の歯? 象は素晴らしい象牙をもっているが、実際噛むための歯はとても小さいということだ。仕事は多いが、収入は十分じゃないという意味である。

チェ・ムビン氏は話す。「パキスタンに対しての誤解があるんです。イスラム文化についての良くない話がたくさん出回っていますが、それは事実とは全く違います。」と言いながら「パキスタンから勤労者たちが沢山来ていますが、事業をおこす人たちも少なくありません。パキスタンといえば、決って勤労者だと思いきみ無視したりするんです。パキスタン人の妻たちは、夫の国籍を話したがりません。それはイメージが良くないからなんです。手の指五本が全く異なるように、国ごとに皆異なるのに、どうしていっしょくたにできるでしょうか?」と反問する。

パキスタン語はもちろん、英語、アラビア

語、インド語、そして韓国語を駆使する彼は、現在通訳としても活躍中だ。出入国管理所と法務部、検察と警察署等で、奉仕の心で困難に処する外国人を対象に書類作成や問題解決のための通訳を行っている。幼いころUN事務総長を夢見たチェ・ムビン氏は、韓国人チェ氏として、また貿易人として多忙な人生を歩んでいる。

최무빈(41) 씨는 2005년 귀화한 한국 국적의 인천인이다. 현재 부평에 거주하고 있는 그는 인천에서 중고자동차 수출 사업을 하는 파키스탄인 중 초기 멤버다. 1996년 무역 사업자 한국으로 건너 온 이후 그와 그의 가족은 알콩달콩 인천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 아담하고 깔끔하게 정돈된 그의 집에는 아내 사에라 무빈(33) 씨와 최샤히르(7) 군, 최미날(5) 양, 그리고 쌍둥이 남매 최샤미르(3) 군, 최알리쉬바 양 등 6명의 식구가 복작복작 행복을 담고 있다. 그와 자식들은 모두 '최' 씨다. 무빈 씨가 한국생활 초기에 도움을 주었던 형 친구의 성을 딴 것이다. 한참 손이 많이 가는 시기의 아이들과 아직은 한국어가 어색한 아내, 타국의 생활이 녹록지 않을 텐데 가장 최무빈 씨의 어깨는 듬직하기만 하다.

수줍은 미소를 감추듯 히잡을 두르고 있는 그의 아내와는 파키스탄에서 2006년 중매로



西區 元倉洞にある自動車輸出園地内の事務室の前での崔ムビンさん
서구 원창동 자동차 수출단지 내 사무실 앞에서 최무빈 씨.

약혼을 하면서 한번 만났다. 알라에게 물어보는 기도(이스테카아라)를 마친 뒤였다. 한국으로 돌아 온 그는 국제전화로 사랑을 키웠다. 초등학교 교사인 그녀와 2007년 결혼했고 아내 사에라 씨를 한국으로 불러들였다. 사에라 씨는 남편과의 첫 만남을 ‘첫인상이 좋았다’라고 기억한다. “한국에 가면 그냥 잘 살 수 있겠다 생각해서 두려움은 없었어요. 지금의 한국생활은 만족해요.” 유치원을 다니는 아이들과 활동할 것도 많고 주 2회는 한국에 거주하는 파키스탄 여자들과 모임을 갖기도 한다. 한국 문화 적응에는 별 어려움이 없다. 그녀는 농담처럼 말한다. “저는 딱 한국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녀는 귀화 신청을 두 차례 했지만 모두 불합격. 이유는 한국어 실력이다. 최무빈 씨 가족 중 유일한 파키스탄인은 아내 뿐이다. “열심히 한국어를 배워 다시 귀화 신청을 하

고 기회가 된다면 파키스탄을 알리는 강사로 활동하고 싶다.”는 뜻을 살며시 전한다. 최무빈 씨는 파키스탄에서 물리학을 전공하고 광고회사에서 컴퓨터그래픽디자인으로 일했다. 전공과 무관한 직종에서 근무하던 그의 호기심은 유학으로 이어졌다. 1996년 외국어 대학교와 서울대학교에서 어학코스를 마치고 서울대학교 전기전자공학과에 입학했다. 어려운 한국어 전공서적의 벽에 부딪히면서 2학년 때 휴학했다. 대신 그는 통역 아르바이트를 했다. 원단을 수출하는 무역회사에서 일을 배웠고 중고 자동차 수출을 본격적으로 하면서 아예 인천으로 이사 왔다. 2004년 6월이다. 처음 무역을 시작했을 때는 사무실도 없었지만 지금은 어엿한 사무실과 여러 명의 직원 둔 사장님이다. 자동차와 중장비, 고철, 원단, 담요 등을 리비아, 이집트, 중동 등에 수출한다.

“코끼리 이빨이에요.” 코끼리 이빨? 코끼리는 멋진 상아가 있지만 정작 음식을 씹는 이빨은 매우 작다는 말이다. 하는 일은 많지만 수입은 흠족하지 못한다는 의미다. 최무빈 씨는 말한다. “파키스탄에 대한 오해가 있다. 이슬람문화에 대해 안 좋은 이야기 많지만 그것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파키스탄에서 근로자들이 많이 오지만 사업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파키스탄하면 으레 근로자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무시한다. 파키스탄인 아내들은 남편의 국적을 말하러 하지 않는다. 이미지가 좋지 않으니 그렇다. 손가락 5개가 다 다르듯 나라마다 다 다른데 어떻게 똑같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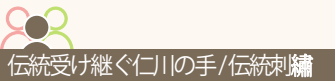
수 있나?”라고 반문한다. 파키스탄어는 물론 영어, 아랍어, 인도어, 그리고 한국어를 구사하는 그는 현재 통역사로도 활동 중이다. 출입국관리소와 법무부, 검찰과 경찰서 등에서 봉사하는 마음으로 어려움에 처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서류 작성과 문제 해결을 위한 통역을 하고 있다. 어릴 적 UN사무총장을 꿈꾸었던 최무빈 씨는 한국인 최 씨로서 무역인으로 바쁜 삶을 살아가고 있다.

글사진 김민영 편집장
文と口キム・ミニョン(김민영) 編集長 · gem0701@hanmail.net

仁川広域市 人口統計 <인천광역시 인구통계>

(2014. 3月底 □在 / 2014. 3월말 현재)

郡区 군 구	総人口 총 인구	住民 登録 人 口 / 주 민 등 록 인 구				外国人 / 외 국 인		
		計 계	男 남	女 여	世帯数 세대수	計 계	男 남	女 여
合計 합 계	2,938,056	2,886,580	1,451,704	1,434,876	1,123,401	51,476	30,626	20,850
中区 중 구	113,250	109,379	56,542	52,837	48,585	3,871	1,982	1,889
東区 동 구	75,807	74,774	37,698	37,076	30,877	1,033	580	453
南区 남 구	417,648	410,716	207,560	203,156	171,420	6,932	3,495	3,437
延寿区 연수구	309,148	304,243	152,101	152,142	109,309	4,905	2,513	2,392
南洞区 남동구	519,848	507,937	253,475	254,462	195,693	11,911	8,719	3,192
富平区 부평구	565,245	556,743	277,996	278,747	214,608	8,502	4,126	4,376
桂陽区 계양구	346,469	343,451	172,290	171,161	128,847	3,018	1,296	1,722
西区 서 구	502,595	492,024	248,864	243,160	183,086	10,571	7,500	3,071
江華郡 강화군	67,300	66,703	33,526	33,177	29,858	597	337	260
甕津郡 옹진군	20,746	20,610	11,652	8,958	11,118	136	78	58



絹糸、一針一針が絵になる
비단실, 한 땀 한 땀 그림이 되다

絹糸が絹地を上下に上がったり下がったりする。針に絹糸を通し繊細に動かす人は、伝統刺繍を受け継ぐイ・ジョンエ(이중애 /71)作家だ。彼女の手が動けば動くほど絹地には絵が描かれ、伝統紋様が浮かび上がる。服を作ったり、ほつれの継ぎ当てをしていたことから始まった裁縫は、彼女の手を通し作品となって蘇る。彼女は今、鶴を完成させているところだ。朝鮮時代、官僚トップの領議政の官服の中心を装飾する胸背(흉배: 昔の官服の胸と背に鶴や虎の絵を刺繍した標章)である。官職位の高低により鶴の数と雲の数が異なり、模様も違う。昔々その大昔、刺繍は誰もがができる装飾ではなく、また誰もが余裕をもって刺繍をすることができるわけではなかった。刺繍は過去、両班家の女性たちだけに許されていた。刺繍は女性が持つべき徳目中のひとつで、精神修養を積む意味が込められている。彼女の作品は、短くて3ヶ月長くて1年かけて完成される。

비단실이 비단천의 위와 아래로 오르내린다. 바늘에 비단실을 꿰어 섬세하게 움직이는 이는 전통자수를 이어가는 이중애(71) 작가다. 그녀의 손이 분주해지는 만큼 비단천에는 그림을 그리 듯 전통문양이 박힌다. 옷을 만들거나 뜯긴 옷을 꿰매는 것에서 시작한 바느질이 그녀의 손에서 작품으로 거듭나고 있다. 그는 지금 학을 완성시키고 있다. 조선시대 관료 중 으뜸인 영의정 관복의 중심을 장식하는 흉배다. 벼슬의 높고 낮음에 따라 학의 수와 구름의 수가 다르고 모양도 달리한다. 아주 먼 옛날, 자수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장식이 아니었고 아무나 여유롭게 놓는 것이 아니었다. 자수는 과거 양반가의 여인들만이 놓을 수 있게 허락됐다. 자수는 여성이 갖춰야 할 덕목 중 하나로 마음의 수양을 쌓는 의미가 담겼다. 그의 작품들은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1년 동안의 기간에 완성된다.

글사진 김민영 편집장 키ム・ミニョン(김민영) 編集長 · gem0701@hanmail.net



「星から来たあなた」in 仁川 ド・ミンジュン(도민준)とチョン・ソンイ(전송이)の愛のコース

‘별에서 온 그대’ in 인천 – 도민준과 전송이의 사랑 코스



宇宙人と人間の400年の歳月を超えた愛の物語、「星から来たあなた(以下ビョルクデ:별그대)」が韓国を越え、中国大陸まで風靡。ドラマの幕は下りたが、「チョン・ソンイ(전송이)効果」と「ド・ミンジュン(도민준)病」の熱気は、いまださめるところを知らない。仁川は主要場面の撮影地だ。そのため仁川に対する関心も、それにつられて高まり、これに関連した観光商品が続々と出回っている。名場面、名台詞を残したビョルクデの中の仁川をいっしょにぶらついてみよう。

외계인과 인간의 400년 세월을 초월한 사랑 이야기, ‘별에서 온 그대(이하 별그대)’가 한국을 넘어 중국 대륙까지 휩쓸었다. 드라마는 막을 내렸지만 ‘전송이 효과’와 ‘도민준 앓이’의 열기는 여전히 뜨겁다. 인천은 주요 장면의 촬영지이다. 이로 인해 인천에 대한 관심이 덩달아 높아지며 이와 연계한 관광 상품이 속속 출시됐다. 명장면, 명대사를 남긴 별 그대 속 인천을 함께 거닐어 보자.

愛が始まったあの場所 – 松島 ソクサン(석산), 仁川市立博物館

400年前のド・ミンジュン(도민준)が地球に不時着した日、絶壁で駕籠(かご)に乗った女性を救ったことから全てが始まった。ブレーキが故障した自動車の中のチョン・ソンイ(전송이)の命を救った「運命の絶壁」とも呼ばれる場所は、仁川大橋近隣の松島ソクサン(석산)。ありきたりの石山が特別な空間に生まれ変わり観光の目玉商品となった。チョン・ソンイ(전송이)の生まれ変わりを暗示する愛の翡翠(ひすい)のかんざしの前で、ド・ミンジュン(도민준)の正体が明らかになったことで関心を集めた場所は、チョンリャン山(청량山)の中腹に位置する仁川市立博物館だ。1946年4月開館した韓国

初の公立博物館として、仁川の歴史を一目で見回することができる。

사랑이 시작된 그 곳 – 송도 석산, 인천시립박물관

400년 전 도민준이 지구에 불시착 하던 날, 절벽에서 가마 탄 여인을 구하며 모든 것이 시작됐다. 브레이크가 고장 난 자동차 속 전송이의 목숨을 구하며 ‘운명의 절벽’이라고도 불린 곳은 인천대교 인근의 송도 석산. 평범한 돌산이 특별한 공간으로 거듭나며 핵심 관광 상품이 됐다. 전송이의 환생을 암시한 사랑의 옥비녀 앞에서 도민준이 정체를 밝히며 관심을 받은 곳은 청량산 중턱에 자리한 인천시립박물관이다. 1946년 4월 개관한 한국 최초의 공립박물관으로 인천의 역사를 한눈에 둘러볼 수 있다.

愛を確認したあの場所 – 仁川大學, 松島セントラル路, ウルワンリ(을왕리)海岸

ド・ミンジュン(도민준)が心理学の講義を通して、チョン・ソンイ(전송이)への愛情の変化を見せた講義室、記者たちに囲ま



れ困り果てた状況に陥るチョン・ソンイ(전송이)に、「過ちをおかした時だけ隠れろ」という名台詞を残した駐車場は、仁川大学の松島キャンパス。そこは、広い校庭と洗練された建物による異国的な景観を誇る。チョン・ソンイ(전송이)が愛馬「ボンボンイ(봉봉이)」とドライブする場面、そしてド・ミンジュン(도민준)がチョン・ソンイ(전송이)を救うために光の中を突き抜けて走った場面は、仁川大学近隣のセントラル路で撮影された。ド・ミンジュン(도민준)が愛のセレナーデを披露しながら「完璧な幸福」の名場面として残る夜の海は、ヨンユ(용유)島 ウルワン리(을왕리)海岸だ。そこは、こじんまりした白い砂原と美しい日没がよく調和し、オールシーズン訪れる人たちににぎわう仁川を代表する海岸でもある。宇宙から来たド・ミンジュン(도민준)と地球のチョン・ソンイ(전송이)は、このように仁川のあちこちで愛を実らせた。彼らの甘いロマンスは、いまだにそこに残り人々の憧れの的となっている。

사랑을 확인한 그 곳 – 인천대학교, 송도센트럴로, 을왕리해변

도민준이 심리학 강의를 통해 전송이에 대한 애정의 변화를 보여주던 강의실, 기



자들에게 간헐 난감한 상황에 빠진 전송이에게 ‘잘못이 있을 때만 숨어’라는 명대사를 남긴 주차장은 인천대학교 송도캠퍼스. 넓은 교정과 세련된 건물로 이국적인 풍광을 자랑한다. 전송이가 애마 ‘봉봉이’와 드라이브를 하는 장면, 도민준이 전송이를 구하기 위해 빗속을 뚫고 달리던 장면은 인천대학교 인근의 센트럴로에서 촬영됐다. 도민준이 사랑의 세레나데를 선보이며 ‘완벽하게 행복한’ 명장면으로 남은 밤바다는 용유도 을왕리 해변이다. 아담한 백사장과 아름다운 일몰이 어우러져 사계절 내내 발길이 끊이지 않는 인천의 대표 해변이기도 하다. 외계에서 온 도민준과 지구의 전송이는 이렇게 인천의 곳곳에서 사랑을 완성했다. 그들의 달콤한 사랑은 아직도 그곳에 남아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チェ・ビョングワン(최병관)写真展「母のシルクロード」

최병관 사진전 ‘어머니의 실크로드’

「家庭の月」5月、家族と共に写真を鑑賞し、母に想いを寄せる展示会が、南洞(ナムドン)文化芸術会館で開催される。

チェ・ビョングワン(최병관)作家の「母のシルクロード」写真展は、追憶の中のふるさとの風景と共に、忘れ去られつつある大切な様々なことをもう一度感じることのできるフォトエッセイ展だ。「母のシルクロード」を元に6つの物語からなる、「懐かしの母」「消え去った故郷」「苦行のシルクロード」「ソレ(소래)灣と塩田」「人一倍花が好きだった母」「月世界にいらっしやるの?」と続き、総69点が展示される。それと共に、チェ・ビョングワン(최병관)の映像資料3編(60分余り)と、その間出刊された書籍及び資料等も展示される。

チェ・ビョングワン(최병관)は、生粋の仁川っ子だ。南洞(ナムドン)区ノンヒョン(논현)洞サンティマウル(산뒤마을)で生まれ、現在までそこで生活をしながら失われつつある故郷の風景をカメラにおさめている。また、戦争が終わって半世紀ぶりに、民間人として

は初めて1996～98年まで休戦線から155マイル西側のマル島(말도)から、最東端ヘグム川(해금강)までを3往復し、写真作業を行った。彼は、2010年米国ニューヨーク国連本部において、潘基文総長主管の個人展「韓国の非武装地帯-平和と生命を探して」を開催し、国内外で注目を集めた。

- 展示期間：5月 1日～31日 (月曜日 休務)
- 観覧時間：午前 10時～午後 6時
- 展示場所：南洞(ナムドン)文化芸術会館ギャラリー ファ・ソ(화・소)
- 観覧料：無料
- 問い合わせ先：453-5710



5월 가정의 달, 가족과 함께 사진을 감상하며 어머니를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전시회가 남동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다. 최병관 작가의 ‘어머니의 실크로드’ 사진전은 추억 속 고향마을의 풍경과 함께 사라져가는 소중한 것들을 다시 느낄 수 있는 포토 에세이전이다. ‘어머니의 실크로드’를 바탕으로 6개의 이야기인 ‘그리운 어머니’ ‘사라진 고향’ ‘고향의 실크로

드’ ‘소래포구와 염전’ ‘유난히 꽃을 좋아하신 어머니’ ‘달나라에 계실까?’로 이어지며 총 69점이 전시된다. 이와 함께 최병관의 영상자료 3편(60여분)과 그간에 출간된 서적 및 자료 등도 전시된다.

최병관은 인천 토박이다. 남동구 논현동 산뒤마을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그곳에서 살면서 사라져가는 고향 풍경을 카메라에 담고 있다. 또한 전쟁이 끝난 지 반세기 만에 민간인 최초로 1996~98년까지 휴전선 155마일 서쪽 말도부터 동쪽 끝 해금강까지 3회 왕복, 사진작업을 했다. 그는 2010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반기문 총장 주관으로 개인전 ‘한국의 비무장지대 평화와 생명을 찾아서’를 열어 국내외 시선을 끌었다.

- 전시기간：5월 1일～31일 (월요일 휴무)
- 관람시간：오전 10시～오후 6시
- 전시장소：남동문화예술회관 갤러리 화·소
- 관람료：무료
- 문의：453-5710

Calendar May

10 sat

こども英語ストーリーテリング「はらべこ あおむし」
・富平(フビョン)アートセンターヘヌリ(해누리)劇場
・午前 10時30分, 午後 1時30分, 3時30分
・全席 2万ウォン / ☎ 500-2000)

어린이 영어 스토리텔링 '배고픈 애벌레'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
・오전 10시30분, 오후 1시30분, 3시30분
・전석 2만원 (☎ 500-2000)

11 sun

2014 日曜伝統芸術 常設公演「ハンウル소리(한울소리)」
・仁川総合文化芸術会館 野外公演場
・午後 5時 (☎ 仁川国楽協会 875-4644)

2014 일요전통예술 상설공연 '한울소리'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
・오후 5시
・☎ 인천국악협회 875-4644

13 tue

ミュージカル「オズの魔法使い」
・仁川生涯学習館 ミチュ홀(미추홀)
・午前 10時 30分, 午後 1時 30分 / 無料
・☎ 899-1516~7

뮤지컬 '오즈의 마법사'
・인천평생학습관 미추홀
・오전 10시 30분, 오후 1시 30분 / 무료
・☎ 899-1516~7

14 wed

仁川カトリック混声合唱団 第2回 定期演奏会
・仁川総合文化芸術会館 大公演場
・午後 7時30分
・☎ 765-6962

인천카톨릭혼성창단 제2회 정기연주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 30분 / 초대
・☎ 765-6962

15 thu

ブランチンコンサート「キム・ガオン(김가은)ジャストリオ」
・西区文化会館 大公演場
・午前 10時
・全席 1万ウォン / ☎ 580-1163

브런치콘서트 '김가은 재즈 트리오'
・서구문화회관 대공연장
・오전 10시 / 전석 1만원
・☎ 580-1163

16 fri

平壤民俗芸術団「我らは 一つ(우리는 하나)」
・仁川総合文化芸術会館 野外公演場
・午後 7時 / 無料
・☎ 420-2742

평양민속예술단 '우리는 하나'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
・오후 7시 / 무료 / ☎ 420-2742

17 sat

ドゥドゥリム(두드림)コンサート「スティッカル クンクワン(스틱컬 쿵궤)」
・仁川総合文化芸術会館 野外公演場
・午後 7時 / 無料 / ☎ 420-2742

두드림 콘서트 '스틱컬 쿵궤'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
・오후 7시 / 무료
・☎ 420-2742

18 sun

共同企画 2014 プラットフォームチョイス「時間は重さだ」
・仁川アートプラットフォーム 公演場
・午後 6時 / 午後 6時
・1万ウォン / ☎ 760-1005

공동기획 2014 플랫폼 초이스 '시간은 무게다'
・인천아트플랫폼 공연장
・오후 6시 / 1만원
・☎ 댄스컴퍼니 760-1005

21 wed

サランバンシネマ「オネストとセレスティン(Ernest & Celestine)」
・ブゲ(부게)文化(ムカ)サランバン
・午後 7時 / 無料
・☎ 505-5950

사랑방 시네마 '어네스트와 셀레스틴'
・부개문화사랑방
・오후 7시 / 무료
・☎ 505-5950

23 fri

紙コップ 人形一人劇「ジェラルダと巨人(Zeraldas Riese)」
・富平文化(フビョンムカ)サランバン
・午後 7時 30分 / 3千ウォン
・☎ 505-5995

종이컵 인형 1인극 '제랄다와 거인'
・부평문화사랑방
・오후 7시 30분 / 3천원 / ☎ 505-5995

24 sat

ホン・ギョウン(홍거운)コラボレーション「サウンドボックス」
・仁川総合文化芸術会館 野外公演場
・午後 7時 / 無料
・☎ 420-2742

홍거운 콜라보레이션 '사운드 박스'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
・오후 7시 / 무료
・☎ 420-2742

25 sun

日曜伝統芸術 常設公演「キム・ミョンナム(김명남)ソリクンとジョ・ギョンゴン(조경곤)鼓手」
・仁川総合文化芸術会館 野外公演場
・午後 5時 / ☎ 仁川国楽協会 875-4644

일요전통예술 상설공연 '김명남 소리꾼 조경곤 고수'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
・오후 5시 / ☎ 인천국악협회 875-4644

28 wed

食育ミュージカル「偏食家の冒険」
・仁川総合文化芸術会館 小公演場
・午前 10時 30分, 午後 1時 / 無料

식생활교육뮤지컬 '편식쟁이 모험'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전 10시 30분, 오후 1시 / 무료

29 thu

仁川芸術高校 舞踊科 定期発表会
・仁川総合文化芸術会館 大公演場
・午後 7時 / 招待
・☎ 433-3176

인천예고 무용과 정기발표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 / 초대 / ☎ 433-3176

30 fri

サランバンシネマ「私たちの星一号とまだら牛(The Satellite Girl and Milk Cow)」
・ブゲ(부게)文化(ムカ)サランバン
・午後 7時 / 先着順 無料 / ☎ 505-5950

사랑방 시네마 '우리별 일호와 얼룩소'
・부개문화사랑방
・오후 7시 / 선착순 무료
・☎ 505-5950

31 sat

名品クラシックシリーズⅢ「アンダーソンとロー(Anderison & Roe)」
・仁川総合文化芸術会館 大公演場
・午後 7時 / R席 3万ウォン, S席 2万ウォン / ☎ 1588-2341

명품클래식시리즈Ⅲ '앤더슨&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 / R석 3만원, S석 2만원
・☎ 1588-2341

仁川AG広報多国籍記者団 IAGクルー

인천AG 홍보 다국적 기자단 IAG크루



アジア競技大会組織委員会は海外広報強化のため、公式英文ブログ(blog.incheon-2014ag.com)を開設し、英文ブログ記者団IAGクルーを運営している。国内外に居住している外国人で構成され、彼らは2014仁川アジア競技大会に関するニュースだけでなく、仁川観光や韓流等、多様な情報を提供している。現在、総 12ヶ国20名で構成され、2期IAGクルーは、多様なオンラインチャンネルを通して、世界津々浦々にアジア競技大会の情報を伝えている。彼らは公式英文ブログに掲載された多様な主題の英文記事を作成し、各自のSNS


負担によって海外に広報する。また、今月16日までは、第3期IAGクルーを募集している。今回選抜される3期は、6月から大会閉幕日10月4日まで活動する。志願希望者は、英文ブログ(blog.incheon2014ag.com/3rd_crew)で志願書をダウンロードした後作成し、Eメール(iagoc@incheon2014ag.org)で提出すればよい。

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는 해외 홍보 강화를 위해 공식 영문 블로그(blog.incheon2014ag.com)를 개설하고 영문 블로그기자단 IAG크루를 운영하고 있다. 국내외 거주하는 외국인으로 구성된 이들은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와 관련된 뉴스 뿐만 아니라 인천관광, 한류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총 12개국 20명으로 구성된 2기 IAG크루는 다양한 온라인 채널로 세계 방방곡곡에 아시아경기대회의 정보를 전하고 있다. 이들은 공식 영문 블로그에 게재

되는 다양한 주제의 영문 기사를 작성하고 각자의 SNS 계정으로 해외에 홍보하고 있다. 이달 16일까지는 제3기 IAG크루를 모집한다. 이번에 선발하는 3기는 6월부터 대회 폐막일인 10월 4일까지 활동한다. 지원

하려면 영문 블로그(blog.incheon2014ag.com/3rd_crew)에서 지원서를 다운로드 후 작성해 이메일(iagoc@incheon2014ag.org)로 제출하면 된다.

断片インタビュー



ロレンス(로렌스)(英国IAGクルー) 로렌스 (영국 IAG크루)

ロレンス(로렌스)は、桂陽(계양)区イマク(임학)洞に住んでいる仁川市民だ。ロンドンでの記者経験を活かし、現在ブログ記者団で活躍中だ。偶然、2012年ロンドンオリンピック関連の仕事をしたのをきっかけに、スポーツイベントに関心を持つようになった。彼は、韓国それも自分が住んでいる仁川でアジア競技大会が開催されるという知らせを耳にし、自然とブログ記者団に参加することとなった。IAGクルーとして彼は、2014仁川アジア競技大会の公式英文ブログで英国の

スポーツ、選手、文化を伝えている。

로렌스는 계양구 임학동에 살고 있는 인천사람이다. 런던에서 기자로 일한 경험을 살려 현재 블로그기자단으로 활동 중이다. 우연히 2012년 런던올림픽과 관련된 일을 한 것을 계기로 스포츠 이벤트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는 한국, 그것도 자신이 살고 있는 인천에서 아시아 경기대회가 개최된다는 소식을 듣고 자연스레 블로그 기자단에 참여하게 됐다. IAG크루로서 그는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공식 영문블로그에 영국의 스포츠, 선수, 문화를 전하고 있다.

仁川AG広報、キルギスタン(Kyrgyzstan)でFun Run~

인천AG 홍보, 키르기스스탄에서 Fun Run~



仁川アジア競技大会組織委員会は、先月4日キルギスタンの首都ビシュケク(Bishkek)で、

アジアオリンピック評議会(OCA)、キルギスタン国家オリンピック委員会(NOC)と共同で、海外広報行事である‘Fun Run’を開催した。この日ビクトリーパークで開かれた行事には、現地主要人事、OCA代表団等が参席し、大会開催の成功を祈願した。また、青少年と一般市民800余名が同席し、現地のマスコミが現場取材する等、大会に対する高い関心を見せていた。組織委員会は、「Fun Run」キャンペーンを大会

開催前までバングラディッシュ、ブルネイ(Brunei)、日本等、約5カ国の都市を追加し、巡回しながら進めていく予定だ。

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는 지난 달 4일 키르기스스탄의 수도 비슈케크에서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키르기스스탄 국가올림픽위원회(NOC)와 공동으로 해외 홍보행사인 ‘펀런(Fun Run)’을 개최했다.

빅토리 파크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현지 주요 인사와 OCA대표단 등이 참석해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했다. 또 청소년과 일반 시민 800여 명이 자리를 함께 하고 현지 언론이 현장 취재하는 등 대회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조직위는 펀런 캠페인을 대회 개최 전까지 방글라데시, 브루나이, 일본 등 약 5개 국가 도시를 추가로 순회하며 진행할 예정이다.

👤

サポーターズニュース

2014仁川AG青年サポーターズ 5期 出発

2014仁川アジア競技大会の青年サポーターズ5期が活動を開始した。先月4日出征を終えた青年サポーターズは今年開催される仁川アジア競技大会組織の開催の成功のための活動を開始した。2ヶ月間1万名が志願し、その中から選抜されたサポーターズは総5,000名。昨年の5倍にもおよぶ人員だ。アジアンゲーム出場国45ヶ国の中、韓国と北朝鮮は韓半島チームとして統合されることから、44カ国が国家別に分かれて活動を行う。出場国のコミュニティーとの連携活動を通じ、民間外交官としての役割を果たす青年サポーターズは、来る6月から本格的な広報活動を始める計画だ。青年サポーターズは、スポーツ弱小国、及び非人種目を応援し、2014仁川アジア競技大会を通じて、アジア人がひとつとなり疎通できるよう努力している。通りや競技場で彼らに出会うことがあったら明るく声をかけてみよう。

2014인천AG 청년서포터즈 5기 출발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청년 서포터즈 5기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지난 4월 출정식을 마친 청년 서포터즈는 올해 열리는 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개최를 위한 활동을 시작한다. 두 달간 1만 명이 지원해 선발된 서포터즈는 총 5,000명. 지난해의 5배나 되는 인원이다. 이들은 아시안게임 출전국 45개국 중 한국과 북한은 한반도 팀으로 통합해 44개 국가별로 나뉘어 활동한다. 출전국 커뮤니티와 연계 활동을 통해 민간 외교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청년 서포터즈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인 홍보활동을 시작할 계획이다. 청년 서포터즈는 스포츠 약소국 및 비인기종목을 응원하고,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에서 아시아인이 하나로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길에서, 경기장에서 그들을 마주친다면 반갑게 맞아주자.

2014AG広報多国籍記者団IAGクルー

2014AG 시민 서포터즈 모집

2014AG広報多国籍記者団IAGクルー アジアンゲームに関心のある市民であれば、誰でもサポーターズになれる。市民サポーターズは、大会期間のあいだ競技場別に分かれ応援活動をする。募集人員は50,000名、人員数が集まるまで募集予定だ。市民サポーターズ専用ホームページ(http://supporters.incheon2014.kr)、及び管轄の邑・面・洞住民センターを通して申請可能。

- 問い合わせ 032-440-4932~3

아시안게임에 관심이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라도 서포터즈가 될 수 있다. 시민 서포터즈는 대회기간동안 경기장별로 나뉘어 응원활동을 하게 된다. 모집인원은 50,000명이며 인원 도달 시 까지 모집할 예정이다. 시민 서포터즈 전용 홈페이지 (http://supporters.incheon2014.kr) 및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 문의 032-440-4932~3

글·사진 차지은 기자 -차야·지운(차지은)記者 ·minsable@hanmail.net

セウォル(세월)号の悲劇、その悲しみを共にする市民

세월호의 비극, 그 슬픔 시민과 함께 하다

悲劇だ。家族も市民も国民も、誰もが泣いた。去る4月16日、あるまじき悲劇的な事故が起きてしまった。仁川を出発し、濟州(チェジュ)道に向かっていた旅客船セウォル(세월)号が、珍島(チンド)沖で沈没した。この船に搭乗していた476名中、仁川市民は36名であった。その中で19名だけが救助された。仁川市は、今回の事故犠牲者を追慕するため、西区(ソグ)の国際聖母(ソンモ)病院に合同焼香所を設置し、市民と共に悲しみを分かち合った。また、今回の事故犠牲者の円滑な葬儀手続きが支援され、富平(プピョン)の昇華苑(スンファウォン)と満月堂(マンウォルダン)の利用による火葬費及び奉安費が全額免除となった。

特に、政府の特別災難地域指定と関連し、仁川市民の被害者も受惠対象者に含まれるよう積



極的に建議された。この事故の犠牲者が他の地域での火葬施設を使用する場合、該当する地方自治団体の条例により、減免条項の適用が受けられるよう、政府次元での措置も建議された。

悲劇이다. 가족도 시민도 국민도 모두 울었다. 지난 4월 16일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비극적인 사고가 일어났다. 인천을 출발해 제주도로 가던 여객선 세월호가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했다. 이 배에 탑승한 476명 중 인천시민은 36명이었다. 이중 19명만이 구조됐다.

인천시는 이번 사고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서구 국제성모병원과 시청 앞 미래광장에 합동분향소를 설치하고 시민과 함께 슬픔을 나눴다. 또 이번 사고 희생자들의 원활한 장례 절차를 지원했으며 부평승화원과 만월당 이용에 따른 화장 비용과 봉안 비용도 전액 면제했다.

특히,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지정과 관련해 인천시민 피해자도 수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했다. 이번 사고 희생자가 타 지역 화장시설을 사용할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감면조항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조치도 건의했다.

ロシア特化街の造成

러시아 특화거리 조성한다

仁川市中(チュン)区ウヒョン(우현)路一帯にロシア街が造成された。韓・露間のビザ免除協定締結に伴い、仁川国際空港と仁川港を通じ入国する、ロシア人観光客を誘致するため、シンポドン(신포동)周辺に国際タウンロシア特化街が造成される計画だ。

ヨナン(연안)埠頭広場の名前は、サンクトペテルブルグ広場だ。ここには、1904年 日露戦争時、仁川沖で自爆したロシア ヴァリャーグ(Varyag)艦追慕碑がある。昨年、韓国を訪問したロシアのウラジーミル・プーチン大統領が直接訪問し、追慕碑に献花するほど意味ある場所である。仁川市と特化街とここを繋ぎ、ロシア芸術祭の開催等の観光プログラムを開発する計画だ。

인천시 중구 우현로 일대에 러시아 거리가 조성된다. 한·러 비자면제 협정 체결에 따라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을 통해 입국하는 러시아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신포동 인근에 국제타운 러시아 특화거리가 조성될 계획이다.

연안부두의 광장 이름은 상트페테르부르크 광장이다. 그곳에는 1904년 러일전쟁 시 인천 앞바다에서 자폭한 러시아 바리야크함의 추모비가 있다. 지난해 한국을 방문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직접 방문해 추모비에 헌화를 할 정도로 의미 있는 장소이다. 인천시와 특화거리와 이곳을 연계해 러시아 예술제 개최 등 관광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이다.

松島4橋 10월에完工

송도4교 10월에 완공한다

松島国際都市への出入のための4番目の橋梁である松島4橋が、来る10月末に完工予定だ。南東(ナムドン)区 コジヤンドン(고잔동)・松島5・7工区をつなぐ松島4橋は、総延長1千10mの斜張橋で、連結橋 618mと斜張橋392mから構成されている。先月始め、高さ93mの主塔を建て、それに継ぎケーブルと足場の設置作業が行われている。

仁川經濟自由区域庁は、松島11工区の埋立が終り次第、コジヤンドン(고잔동)から松島国際都市を結ぶ松島5橋も設置する計画である。

송도국제도시 진·출입을 위한 4번째 교량인 송도4교가 오는 10월 말 완공될 예정이다. 남동구 고잔동~송도 5·7공구를 연

결하는 송도4교는 총연장 1천10m의 사장교로 접속교 618m와 사장교 392m로 구성된다. 지난달 초 93m 높이 주탑을 올렸으며 이어 케이블과 상판 설치 작업이 진행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송도 11공구 매립이 끝나면 고잔동에서 송도국제도시를 잇는 송도5교도 설치할 계획이다.

スポーツ青少年が仁川に集う

스포츠 꿈나무들 인천에 모인다

第43回 全国少年体育大会 開催 제43회 전국소년체육대회 개최

仁川では、今月24日から27日までの4日間、未来のスポーツスターたちが、夢と挑戦を繰り広げる「第43回 全国少年体育大会」が開催される。今年仁川では、ビックスポーツイベントが相次いで開かれる。第43回 全国少年体育大会は、2014 仁川アジア競技大会と、第11回障害者アジア競技大会、及び2014 全国障害者体育大会 等の、事前点検を兼ねる準備の役割も果たすこととなる。

第43回 全国少年体育大会は、43カ所の競技場において、計33種目が開かれる予定だ。ムナク(문학)・パク・テファン(박태환)水泳場等 アジア競技大会に備え、建てられた新設競技場の10カ所とサムサン(삼산)体育館等、既存施設の5カ所を含めた、計15個の競技場とドウォン(도원)水泳場等、12個の訓練施設が競技場として選手たちを迎える。新たに建てられたり、アジア競技大会のため補修中の、漕艇(콘인/용인), 카누(콘인/용인), 射撃(췌원/청원), 사이클(위지췌브/의정부)の4種目は、館外競技場で行われる計画である

인천에서 이달 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 미래 스포츠 스타들의 꿈과 도전의 장이 될 ‘제43회 전국소년체육대회’가 열린다. 올해 인천에서는 빅 스포츠이벤트가 연이어 열린다. 제43회 전국소년체육대회는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와 제11회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4 전국장애인체육대회 등을 사전 점검하고 준비하는 역할도 한다.

제43회 전국소년체육대회는 43개 경기장에서 총 33개 종목이 열릴 예정이다. 문학박태환수영장 등 아시아경기대회를 대비해 지은 신설경기장 10개소와 삼산체육관 등 기존 시설 5개소를 포함 총 15개 경기장과 도원수영장 등 12개 훈련시설이 경기장으로 선수들을 맞는다. 새로 짓거나 아시아경기대회를 위해 보수 중인 조정(용인), 카누(용인), 사격(청원), 사이클(의정부) 4개 종목은 관외경기장에서 진행할 계획이다.

「大切な一票、必ず参与!」 6.4 全国同時 地方選挙

‘소중한 한 표, 꼭 누리세요’ 6.4 전국 동시 지방선거



大韓民国の満19歳以上(1995年 6月 5日以前の出生者)の国民であれば、誰でも投票権を保有 している。東(ドン)区多文化家族支援センターでは、去る4月25日多文化家族と共に事前投票体験行事を開催した。15名が参加した今回の行事は国民の資格と権利を享受するという自負心を持って実施された。「6.4地方選挙」及び「事前投票制」の意味と手順をまず理解し、貴重な「一票」の機会を逃すことのないようにしよう。

대한민국의 만 19세 이상(1995년 6월 5일 이전 출생자) 국민이라면 누구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동구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는 지난 4월 25일 다문화 가족과 함께 사전투표체험 행사를 열었다. 15명이 참여한 행사는 국민의 자격과 권리를 누린다는 자부심 속에서 진행됐다. ‘6.4지방 선거’ 및 ‘사전투표제’의 의미와 절차를 미리 알아보고 소중한 ‘한 표’의 기회를 놓치지 말자.

6월 4일 地方選挙とは？

地方選挙とは、各地域を代表する人材を選ぶことだ。今回の「6.4地方選挙」は、広域団体長(仁川市長)、広域議会地域区、及び比例代表選挙、基礎団体長選挙(区長、郡守)、基礎議会地域区及び比例代表選挙、教育委員長の選挙等、総7つの選挙を同時に実施する。即ち1人7票制で選挙ごとに政党、または候補者に1票ずつ投票するということになる。指定された投票所を訪問し、身分証明書(住民登録証、運転免許証、旅券等)で、まず本人かどうか確認した後、選挙人名簿に署名、または捺印する。1次は3枚の投票用紙(広域団体長、教育委員長、基礎団体長)に記票後、投票箱に投入する。2次は4枚の投票用紙(地域広域 基礎議員、比例広域、及び 基礎議員)に記票後、投票箱に投入する

6월 4일 지방선거란?

지방선거란 각 지역을 대표하는 일꾼을 뽑는 것이다. 이번 ‘6.4 지방선거’는 광역단체장(인천시장), 광역의회지역구 및 비례대표선거, 기초단체장선거(구청장, 군수), 기초의회지역구 및 비례대표선거, 교육감 선거 등 모두 7개의 선거를 동시에 치른다. 즉, 1인 7표제로 선거마다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한 표씩 행사하는 것이다. 지정된 투표소에 방문해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으로 본인 확인 후 선거인 명부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한다. 1차로 3장의 투표용지(광역단체장, 교육감, 기초단체장)에 기표 후 투표함에 넣는다. 2차로 4장의 투표용지(지역광역 기초의원, 비례광역 및 기초의원)에 기표 후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事前投票制」って何？

選挙日は法廷公休日として指定されているが、当日参与できない人のために、今年度より事前投票制ができた。より便利に、またより多くの国民投票参与のために考案された制度で、全世界初の導入となる。5月30日(金)、または31日(土)に居住地に関係なく、身近な住民センター等、全国どこでも参与可能だ。しかし投票当日の方法とは少々異なる。まず、名簿端末機に身分証明書を入れ、統合選挙人名簿の通信網を通じ本人の確認が行われた後、監督官に再確認を受け署名、または捺印の手順で行われる。投票用紙発給機から出てくる、本人が属する選挙区の投票用紙7枚と封筒(官内事前投票は、投票用紙だけを配付)を持参し記票所へ行く。慎重に記票した後封筒に入れ、投票箱に投入後、すみやかに投票所を出ればよい。

● 投票時間: 午前6時～午後6時 ● 問い合わせ先: 1390 ● 参考: www.nec.go.kr/

‘사전 투표제’가 뭐예요?

선거일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하고 있지만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 올해부터 사전투표제가 생겼다. 보다 편하게 더 많은 국민의 투표 참여를 위해 마련한 제도로 전 세계에서 처음 시도 되는 것이다. 5월 30일(금) 또는 31일(토)에 거주지와 상관없이 가까운 주민 센터 등 전국 어디서나 참여할 수 있다. 투표 방법은 조금 다르다. 우선 명부 단말기에 신분증을 넣어 통합선거인명부 통신망을 통해 확인 후 감독관에게 재확인을 하고 서명 또는 날인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투표용지 발급기에서 나온 내가 속한 선거구의 투표용지 7장과 봉투(관내 사전투

표는 투표용지만 배부)를 들고 기표소로 간다. 신중하게 기표를 한 후 봉투에 넣어 투표함에 넣고 투표소를 나서면 된다.

● 투표시간: 오전 6시~오후 6시 ● 문의: 1390 ● 참고: www.nec.go.kr/

6월 4일 全国同時 地方選挙、選挙日には、投票して応援!

満19歳以上(1995年 6月 5日以前の出生者)投票可能。
● 投票場所: 住民登録地により該当される投票所(自宅に郵送された投票案内書を確認)
● 投票時間: 午前6時～午後6時
● 準備物: 住民登録証、運転免許証、旅券、国内居所申告証等、官公署・公共機関が発行した写真付着の身分証明書の中からひとつ持参

選挙当日の投票ができない場合は、別途申告なしで、5月30日～31日 事前投票可能

● 投票期間: 5月30日(金)～31日(土)、午前6時～午後6時
● 投票場所: 邑・面事務所や、洞住民センターに設置された事前投票所の中から便利な場所を訪問
● 準備物: 身分証明書(上記の準備物を参照)

※「事前投票」とは、全国どこでも作成された一つの選挙人名簿を用い、身近な事前投票所で投票ができる制度。中央選挙管理委員会 ホームページ(www.nec.go.kr)で、最寄りの事前投票所が検索可能。

6월 4일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일, 투표로 응원하세요!

만 19세 이상(1995년 6월 5일 이전 출생자) 투표할 수 있습니다.

● 투표장소: 주민등록지 해당 투표소(집으로 우송된 투표안내문을 확인하세요)
● 투표시간: 오전 6시~오후 6시
● 준비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내거소신고증 등 관공서·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중 하나

선거당일 투표할 수 없다면 별도 신고없이 5월 30일~31일 사전투표할 수 있습니다.

● 투표기간: 5월 30일(금)~31일(토), 오전 6시~오후 6시
● 투표장소: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중 편리한 곳
● 준비물: 신분증(위의 준비물 참조)
※ 「사전투표」는 전국을 하나의 선거인명부로 작성하여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는 제도로 중앙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에서 가까운 사전투표소를 검색 할 수 있습니다.

글. 주란 기자 조(주란) 記者 · ri0217@naver.com

仁川広域市選挙管理委員会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6月4日 私と家族のために、 投票によって応援しましょう。

6월 4일 나와 가족을 위해
투표로 응원하세요

“投票用紙 七枚に、地域への愛を込めてください。”
“투표용지 일곱장에 지역사랑을 담아주세요”

選挙種類 仁川広域市教育監選挙、仁川広域市長選挙、区庁長・郡守選挙、
仁川広域市委員選挙(地域区、比例代表)、区・郡委員選挙(地域区、比例代表)

선거종류 인천광역시교육감선거, 인천광역시장선거, 구청장·군수선거,
인천광역시의원선거(지역구, 비례대표), 구·군의원선거(지역구, 비례대표)

6月4日は、第6回 全国同時地方選挙の日です。
私たちの力で、きれいな選挙文化をつくっていきましょう。
選挙法の違反行為申告は、“局番なしの 1390”へ
(申告 提報者の身元は、徹底的に保護致します。)

6월 4일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요일입니다.
우리 힘으로 깨끗한 선거문화를 만들어갑시다.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는 “국번없이 1390”으로~
(신고·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해 드립니다.)